

PEARLS OF THE AEGEAN

에게 해의 진주, 키클라데스

'델로스 섬을 원형으로 둘러싼 섬들'이라는 뜻의 키클라데스 제도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다. 아폴로와 헤라, 디오니소스 등 그리스 신들의 무대였으며, 흰벽 집과 예배당, 풍차가 새파란 바다, 새하얀 바위와 어우러진 곳, 키클라데스의 풍경을 담았다. 글 나탈리 록카 사진 브루노 모란디

Named after the circle they form around the sacred island of Delos, the Cyclades (or circular islands) have long captivated the imagination of visitors. These are places where traditional white and blue houses are set against the contrast of a tableau peppered with little chapels and aloof windmills, and where idyllic sandy beaches are kissed by the crystal blue sea. By Natali Lokka. Photographs by Bruno Morandi

해양 국가 키클라데스 제도 최북단에 위치한 안드로스는 비릿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깃든 섬이다. 섬 중심지에는 중세풍, 신고전주의풍, 키클라데스 전통 건축물이 혼재하고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한 안드로스 섬은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아왔는데, 제도에서 가장 식물이 무성하고 초목이 무거진 곳으로 통한다. 키클라데스에서 수영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해변이 있다.

Naval Tradition Andros, the northernmost island of the Cyclades, has a rich naval tradition. Its capital, Chora, is a blend of medieval, neoclassical and Cycladic architecture and even boast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Museum of Contemporary Art. Better suited for family vacations, Andros has captured the souls of visitors with its unique natural environment, which makes it one of the lushest and greenest of the Cycladic islands. Head to the sandy beach of Batsi for one of the Cyclades' best swimming experiences.





월면 루브르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인 '밀로의 비너스'의 고향 밀로스는 해변이 무려 70여 개나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여행지 중 하나다. 그중 사라키니코 해변은 호죽한 석회암 절벽과 독특한 화산 지형으로 시선을 붙든다. 월면(月面) 풍경에 자주 비교되는 사라키니코 해변은 에게 해의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다.

Moon Safari The Venus de Milo statue, now on permanent exhibition at the Louvre Museum in Paris, was originally discovered on the island of Milos. It is not hard to see why Milos, with more than 70 gorgeous beaches, has been voted one of the most beautiful islands in Greece. Sarakiniko stands out with its moonscape-like volcanic formations, making it one of the most photographed spots in the Aegean.



골목 풍경 그리스의 전통과 서구 문명은 1522년까지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로스 섬에서 완벽하게 조화의 꽃을 피웠다. 시로스 섬과 키클라데스 제도 전체의 수도인 에르무폴리는 그리스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시대의 요소가 혼합된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풍내는 곳이다. 또 키클라데스 제도 남쪽 포레킨드로스 섬(오른쪽 페이지)은 아직 휴양지로 개발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을 보장한다. 200미터 절벽 위에 자리한 섬 중심지는 평원과 여계 해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이방인을 매혹시킨다.

Lady Cyclades Greek tradition and western civilization blend in total harmony on Syros, which remained under Venetian rule until 1522. Ermoupoli, the capital of both the island and the entire Cyclades archipelago, boasts a blend of neoclassical styles, which combine Greek classicism with aspects of the Renaissance aesthetic. Folegandros (opposite), in the southern Cyclades, is an island that has yet to be touched by tourism. Built at the edge of a 200m cliff, its capital has breathtaking views of the Aegean Sea.





바람의 섬 파란 문이 달린 하얀 집, 푸른빌레아 영굴이 자라는 거리, 이로 같은 길, 키올라데스 특유의 풍차, 수백 개의 예배당, 미코노스 섬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풍경의 전경이라 할 만하다. 햇빛 쏟아지는 해변과 다양한 파티가 열리는 섬, 미코노스는 아리스토텔을 오디세스와 재클린 오디세스 같은 이름을 끌어들이 1960년대부터 수시로 신문 1면을 장식해왔다.

Island of the Winds Boasting whitewashed houses with blue doors, hand-painted streets, picture perfect labyrinthine roads, charming windmills and hundreds of chapels, Mykonos never fails to capture the imagination. A beach paradise by day and a cosmopolitan party scene by night, it first made headlines in the 1960s when it attracted the likes of Aristotle and Jackie Onassis.

흑다이아몬드 세계 최고의 섬 여행지로 자주 선정되는 산토리니는 아름다운 석양과 그림 같은 마을이 화산 지형의 절벽 위에 동지를 틈 곳이다. 산토리니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오이아 마을은 칼데라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계단이 많은 길과 파란색 돌 지붕 교회는 전 세계 사진가들의 출사 여행지로 명성이 높다. 오이아 성에서 235개로 구성된 계단을 걸어 내려가거나 당나귀를 타고서 아무디 해변과 아기오스 니콜라오스 예배당을 찾아갈 수 있다.

Black Diamond The island of Santorini will captivate you with its stunning sunsets and picturesque towns perched on the edges of volcanic cliffs. Oia, Santorini's most beautiful village, offers a captivating view of the island's caldera villas, while its stepped streets and blue-domed churches are among the most photographed in the entire country. Walk down the 235 steps from Oia Castle or ride a donkey to reach Ammoudi beach and the Agios Nikolaos chapel.





대한항공은 이스탄불로 주 4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Istanbul four times a week.

● **미코노스 섬** 미코노스까지는 이스탄불을 출발해 아테네를 경유하는 항공편이 편리하다. 예게항공은 주 3회, 올림픽항공은 주 5회 운항하는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하루 묵는 일정이 자주 있다. 다른 방법은 이스탄불에서 보드룸까지 항공편을 이용한 뒤 배편으로 도데카네스 제도의 코스 섬까지 가서 카를라데스로 들어갈 수 있다. 혹은 터키의 쿠사다시를 경유해 사모스 섬에서 배편으로 미코노스까지 갈 수 있다. 섬 남쪽인 파로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티 없이 맑은 해변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릴 같은 어촌인 나무사는 카를라데스 제도의 대표적 휴양지다.

● **델로스 섬** 5000년 역사로 가득 찬 야외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델로스 섬은 미코노스 섬에서 배편으로 20분이면 닿는 곳이다. 그리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화, 역사, 건축학적인 장소로 꼽히는 델로스는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후 100년 사이 지중해 연안의 종교 중심지였다. 중요한 랜드마크로 콤포탈리아스트 광장, 아폴로 신전,

헤라와 이시스, 디오니소스의 신전과 대리석 원형 극장이 있는데, 원형 극장은 아테네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에서 가장 밝은 곳이라고 한다. 이 고대 유적은 월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문을 열며, 델로스 섬을 찾는 사람들은 마지막 배편으로 미코노스 섬으로 돌아가야 한다. 델로스는 199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산토리니 섬** 초승달 모양의 산토리니 섬은 미코노스 섬에서 페리로 2시간 반이던 달을 수 있으며, 다양하고 독특한 해변이 매력적인 섬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해변은 레드비치로,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이 해변의 이름은 장대한 바위 지형과 붉은 모래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화이트비치는 배로만 닿을 수 있다. 산토리니 섬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카마리 해변은 화산 활동의 산물인 검은 모래가 있는 자갈해변으로 유명하다. 길데라 골짜기에 있는 아무디 해변과 아기오스 니콜라오스 주변은 수영 장소로 방문객에게 인기다.

● **MYKONOS** Mykonos is accessible from Istanbul via Athens three times a week with Aegean Airlines and five times a week with Olympic Air — often with the option of staying overnight in the Greek capital. An alternative is to fly to Bodrum from Istanbul, take the boat to Kos in the Dodecanese and from there to the Cyclades. From Kusadasi in Turkey, you can cross over to the Greek island of Samos and continue by boat to Mykonos. South of Mykonos, Paros will impress you with its natural beauty and crystal-clear beaches. The fishing village of Naoussa claims to be one of Cyclades' most cosmopolitan resorts.

● **DELOS** Delos, an open-air museum brimming with 5,000 years of history, is a short 20-minute journey by calque from Mykonos. One of the most important mythologic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ites in Greece, it became a major religious hub between 900 BC and 100 AD. Among its most important landmarks are: the Agora of the Competallasts, the Temples of the Delians, Hera and Isis, the House of Dionysos and an ancient

marble theater. According to a study by the University of Athens, the theater is considered to be the point on the Mediterranean where the sun shines the brightest. The site is open every day except Monday, and those who visit have to leave the island with the last boat back to Mykonos. Delos was nam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0.

● **SANTORINI** The crescent-shaped island of Santorini, just two and a half hours by ferry from Mykonos, offers a selection of beach options. The most impressive of all is the Red Beach, a volcanic stretch of sand that takes its name from its spectacular rock formations and red sand. Next to it is White Beach, which is only accessible by boat. Kamari, one of the busiest beaches on the island, is known for its deep pebbly banks of volcanic black sand. For a spectacular swimming experience, visit Ammoudi beach and Agios Nikolaos at the foot of the calderas.

자세한 문의는 [한진관광](http://www.kal.tour.com)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http://www.kal.tour.com) www.kal.tour.com



© Laurent Faron / Lighted action